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이지영 계장에 감사장

N지나 19일 농협은행 정읍시지부의 이지영 계장이 보이스 피싱 사기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정읍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며 기관을 사칭한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씩 연속 인출하는 피해자를 수상히 여겨 비정상 거래로 판단해 지급 정지를 취했다. 이후 피해자가 은행을 찾아와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영계장은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112에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삭제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순기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장은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금융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천동농협, 등굣길 아침밥 먹기 캠페인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지난 20일 무종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의 하나로 지역 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제공하고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함께 진행 되었다.

행사에는 농가주부 회원분과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해 등교하는 학생 및 교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롯데리아 전주 비빔 라이스버거를 나눠주며 쌀 소비확산에 동참을 호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고산면서 청년 공익활동… 큰 호응 얻어

완주군과 원광보건대학교가 지난 21일 고산면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방사선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고산면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간호학과에서는 활력장후 측정(혈압), 만성질환 교육, 활동과 운동교육, 손씻기, 응급상처키트 제공, 감염관리교육, 치매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안경광학과에서는 근용안경(돋보기) 처방 및 보급, 착용안경 세척 및 수리, 눈 건강 관리교육, 방사선과에서는 추억의 흑백사진 찍기 및 심리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고창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임명장 수여식

고창소방서는 지난 19일 해리남성의용소방대와 성송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지역 의용소방대의 리더십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수여식은 의용소방대의 조직 내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관리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해리남성의용소방대 김민웅 부대장이 연임됐고, 성송남성의용소방대 한광호 대원이 신임 부대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김 부대장은 2022년부터 부대장직을 맡아 왔으며, 한광호 대원은 구조구급반장으로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발달장애인과 자립의 꿈 키운 캠핑 성료

두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완주 아미존 카라반파크서 요리대회·물놀이 등 진행



두드림 사회적협동조합(대표 최성원)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완주 아미존 카라반파크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캠핑대회와 물놀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립심을 기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북 지역의 10개 기관에서 모인 60여 명의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요리, 생활훈련, 공공질서 지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쉬운 요리 대회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고, 다른 팀과 나누는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행사에는 바비큐 파티와 패션쇼, DJ와 함께하는 신나는 댄스파티도 마련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웃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튿날에는 물놀이장인 아미존 아쿠아파크에서 시원한 시간을 보내며 무더위를 날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종합 우수상을 받은 이00씨(32세)는 “스스로 요리를 계획하고 해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두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최성원 대표는 “이번 캠핑은 발달장애인들이 배우고 익힌 생활기술을 실제로 펼쳐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였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이 날의 기억은 모두에게 따뜻한 응원으로 남았다.

/이만호 기자

‘가정 안에서의 변화’ … 100인의 아빠단 7기 출범

도·인구보건복지협회 공동주관

전북자치도는 저출생 대응의 패러다임을 ‘가정 안에서의 변화’로 전환하고, 가족친화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아빠 육아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중심 육아 프로그램 ‘100인의 아빠단’이 올해도 다시 출범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7기 전북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129명의 아빠들과 함께 6개월간의 ‘함께육아 여정’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아빠단 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체험 프로그램과 퍼포먼스,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전북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한다.

‘100인의 아빠단’은 3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2017~2022년생)를 둔 아빠들이 육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 기반 공동 육아프로젝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체험 중심 운영 방식으로, 가족 유대 강화와 육아역량 향상을 동시에 꾀한다.

올해 7기 아빠단은 전통놀이 체험, 치즈 만들기, 어린이 뮤지컬 관람 등 매월 주말 가족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 주간미션’도 병행한다. 주간미션은 놀이법을 멘토 아빠가 영상·사진으로 공유하면 참여 아빠들이 이를 따라하며 육아과정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육아가 처음인 초보 아빠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매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난해 활동했던 6기 아빠들의 미션 사례가 소개돼 큰 공감을 얻었다. 전주시의 장정현 씨는 광복절에 자녀와 태극기를 그린 경험을 “작지만 오래 남는 선물”이라 표현했으며, 군산시의 최명호 씨는 딸과 함께 그림 그리기 미션을 수행하며 “마음의 거리도 함께 좁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육아 공동체 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출산율 개선 성과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실제로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상승했으며, 2025년 1분기에는 0.87명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이를 ‘아빠단’처럼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참여 육아 문화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들의 행동이 도의 출산율 반등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는 아빠들이 육아의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찬욱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장은 “전북 아빠단은 함께육아의 가치를 실천하는 지역 대표 육아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 공동체가 가족친화 사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복지·일자리·주거 4개 분야에 걸쳐 70개 과제를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만호 기자

부안군-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지역 상생협력 협약 맺어

지역 자원 공유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 생활인구 유치 활력 기대

부안군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지난 19일 야생화단지 조성을 비롯한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자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자원을 활용한 야생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 탐방객 편의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문화·관광·지역축제 분야에서의 협력, 우수 행정 사례의 공유 및 상호 행정정보 교환 등 폭넓은 협력 사항이 명시됐으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이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단지 조성 사업을 넘어 행정과 문화, 관광을 통합한 종합 발전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약 50만명이 찾은 변산마실길 2코스(야스타페이지 군라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야생화 기반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군은 야생화단지를 통해 지역 생태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박물관은 보유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 문화 행사 및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물관 관계자 역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98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5 완주 생문동 한마음 축제’ 성료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인 400여명이 함께한 ‘2025 완주 생문동 한마음 축제’가 지난 21일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활발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우수동호회 12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한마음 명랑운동회 청백전’에서는 총 40개 동호회(백팀 20팀, 청팀 20팀)가 두 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게임과 단합 활동을 펼쳤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소방서,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참여

남원시보건소 신속대응반은 지난 19일, 요천 일원에서 남원소방서 주관으로 실시된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에서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 구급 대응 체계를 점검했으며, 특히, 댐 수문 고장으로 인한 요천변 수해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각 기관의 협업 아래 현장 대응 절차를 실천처럼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 △사상자 분류 및 현황판 작성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및 병원 이송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사고 초기부터 부상자 분류, 응급처치, 병원 이송, 현장 지휘·통제 등 전 단계에 걸쳐 통합 대응 절차가 이뤄졌으며, 남원시보건소 신속대응반은 현장에서 응급환자 이송 지원 및 의료 자원 연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서, 장마철 산사태 대비 관계기관 합동 훈련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지난 19일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에 앞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장수군 장수읍 소재 (구)씨리재에서 ‘장마철 산사태 대비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경찰·군청·소방 관계자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 차량통제 및 우회도로 확보, 주민대피 유도·지원 등 산사태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진행하였으며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장수=고판호 기자

검산사랑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검산사랑 복지기동대(대장 최춘열)가 관내 취약계층 10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사철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기동대원들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 진행됐다. 대원들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 안전손잡이와 화장실 미끄럼방지매트 설치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춘열 복지기동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부량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김제시 부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17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성록 전문강사를 초청해, 혹서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탈수, 어지럼증 등 주요 건강 이상 증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무더위 속 작업시 유의사항, 수분 섭취 요령, 시원한 복장과 휴식의 중요성 등 실생활에 유용한 예방수칙을 전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